

# 리황의 철학사상에 대하여

변정암\*

## 【국문초록】

퇴계 이황은 16세기의 대표적인 관념론철학자이다. 이황의 철학사상은 총체적으로 존재론과 의식론, 윤리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그의 존재론에서는 이를 운동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며 우주만물을 낳는 '능발능생'의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 위치를 상제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려 '극존무대'의 절대적 존재로 정립하였다. 또한 이것에 기초하여 이일원론적 경향을 뚜렷이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인식론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원칙적이며 본질적인 구분을 부정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의 본성 속에 이미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이를 사물현상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과정이 이 스스로의 자기 발현에 의한 자기 인식과정임을 명시하는 '이자도설'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윤리설 또한 이일원론에 기초하여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주경(主敬)'론이다. '경'에는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개개의 사물을 각각 전일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단계 즉, '물아통일'의 경지이다. 이처럼 '물아통일'을 '경'의 최고 이상경계로 세운 것은 '천리'에 부합되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필연성을 확증하자는데 있었다.

**주제어** 퇴계 이황, 관념론철학자, 이, 이일원론, 이자도설, 주경론

---

\* 사회과학원 김일성주의연구소 박사

리항(퇴계, 1501~1570)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관념론철학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력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력사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78면)

500여년의 리조력사를 일괄해볼 때 리항만큼 큰 성리학자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가 조선철학사 특히 중세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자못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리항은 리조 시대를 대표하는 관념론철학자로서 그 이후의 관념론철학, 성리학은 리항의 직접적인 계승이거나 혹은 일정한 측면에서 그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철학사상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한 견해들만을 선택적으로 취급하면서 리항철학의 근본성격을 해명해보려고 한다.

리항의 철학사상은 총체적으로 존재론과 의식론, 른리설로 이루어져있다.

리항의 존재론은 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리는 그의 철학에서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범주이다. 원래 리는 성리학의 핵심범주로서 그것을 정식화한 것은 주희였다. 주희는 리를 사물을 낳는 근원으로, 기를 사물을 구성하는 질료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나아가서 리가 ‘소이연지고’(자연법칙), ‘소당연지칙’(도덕준칙)으로서 자연과 사회, 인간의 존재와 변화, 그 활동을 지배한다는 관념론적 견해를 제기함으로써 주자성리학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그러나 주희는 성리학의 본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의 유아독존적 성격을 피하고 리의 운동과정에 이른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리의 ‘무조작’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우주만물의 발생변화를 설명하면서 리와 기의 존재를 다같이 승인하였으며 이로부터 그의 철학 속에는 리기이원론적 경향이 다분히 포함

되게 되었다. 이것은 그 후 성리학이 세계의 존재의 운동을 전일적으로 해석하며 철학체계를 완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주자성리학이 안고 있는 이러한 약점을 간파한 리황은 리의 절대성, 보편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리황은 우선 리를 운동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며 우주만물을 낳는 '능발능생'의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는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리에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에 동정이 있다. 만약 리에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떻게 저절로 동정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을 알면 의문이 없을 것이다. 대개 감정의지가 없다는 것 등은 본연의 체이며 능히 말하고 생하는것(能發能生)은 지극히 묘한 작용이다. 리는 스스로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히 양을 낳고 음을 낳는다.”(『퇴계집』 권39, 「서-답리공호문목」)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리황은 체(본체)와 용(작용)의 개념을 통하여 주희의 견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리황의 주장에 의하면 리는 체와 용을 가지는데 리가 허하고 무조작한 것은 체이며 실하고 활발히 운행하는 것은 용이다. 체와 용은 통일되어 있는 것만큼 리의 본질은 마땅히 체와 용의 통일 속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리가 허하고 무조작한 것만 보고 리가 동정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체와 용을 분리시키는 비합리적인 관점이며 만약 그렇게 되면 리를 ‘죽은 물건’으로 보게 되고 종당에는 불가의 적멸에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리가 체와 용을 가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서 리가 동정하여 기를 낳는 과정도 마땅히 ‘능생’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리황이 리의 본질을 고찰하면서 리의 능동성, 자율적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서 리의 전통적인 ‘무위’적 성격이 사라지고 그것이 그 어떤 감정, 의지를 가진 신비스러운

존재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리를 절대화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리의 '극존무대'(지극히 높아서 상대가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극도에 달하였다.

그는 리달, 리천기에서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태극이 동정을 가지는 것은 태극이 스스로 동정하는 것이며 천명이 유행하는 것은 천명이 스스로 유행하는 것이다. 어찌 시키는 자가 따로 있겠는가. 다만 무극과 이오(음양오행)가 묘하게 합치고 엉키여 만물을 생하는데 나아가보면 마치 주재운동하면서 그렇게 시키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서경에서 말하는 '오직 상제가 백성에게 참된 마음을 내린다'는 상제이며 정자가 말하는 '주재로서 말하면 제라 한다'는 제도 이것이다. 대개 이 리와 기가 합하여 물을 명하면 그 신묘한 작용이 이와 같다는 것뿐이지 천명이 유행하는 곳에 따로 시키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리는 극존무대하여 물을 명할 뿐 물에게서 명을 받지 않는다.”(『퇴계집』권13, 「서-답리달리천기」)라고 썼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리, 상제문제를 매우 조심히 다루고 있다. 그는 상제의 존재를 승인하면서도 그것을 《시키는 자》즉 인격적주재자의 의미로 리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을 첨부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리의 '극존무대'를 선포하고 그 기능이 '물명'(物命)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철리를 표방하는 성리학자로서 고대의 천박한 천명론을 용인할 수는 없으면서도 리의 지위를 상제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그의 모순적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적으로 리황은 상제로 리를 대체하였으며 리에 상제의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였다.(그는 다른 곳에서 시키는 자가 바로 리라고도 말하고 있다.『퇴계집』권25, 「서-답정자중 별지」)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리황의 리는 주자보다도 더욱 관념론적으로 개악되고 심화되었다. 리황에 의하여 리는 원리적으로 그 어떤 동격자도 허

용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실체로, 스스로 운동능력을 가지고 사물의 생성발전을 주재하는 '극존무대'의 절대적 존재로 정립되었다.

리황은 리를 능발능생하는 절대적 극존자로 규정한데 토대하여 리기호상관계 문제에서 '리선기후'를 주장하고 리일분수설을 피력하는 등 리일원론적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리황이 존재론에서 리일원론적 객관관념론으로 명실공히 전환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리황철학의 리일원론적, 관념론적성격은 인식론에서도 명백히 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격물치지'론에 반영된 인식주체와 대상문에 대한 론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리의 절대보편성을 주장한 '극존무대', '리일'론에 기초하여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원칙적이며 본질적인 구분을 부정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정신적 실체인 리의 파생물이므로 사물에 부여된 리나 사람에게 부여된 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자연의 리와 나는 본래 하나'(『퇴계집』 권37, 「서-답리평축문목」)이다. "만일 단지 사물이 외부적이라는 것만 알고 리가 피차의 구분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리와 사물을 둘로 나누는 것이진실로 옳지 않다."(『퇴계집』 권13, 「서-답리달리천기」)

리황이 리에 대한 내외합일을 주장하여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원칙적인 구분을 부정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물에 대한 인식과정을 정신적인 리의 자기 인식과정으로 규정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그에게서 물아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사물의 리와 인간에게 갖추어져있는 리 즉 성(인식능력 혹은 진리)이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성에 만리가 구비되어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사물의 리이자 성에 구비되어 있

는 리이므로 인간이 인식해야 할 실제적인 대상은 외부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성 그 자체이다. 그가 “이 리는 물아의 구분이 없고 내외가 없으며 토막과 단락이 없으며 모난 것과 둥근 것의 차이가 없다. 바야흐로 그 고요한 것은 뒤섞여 전일하게 갖추어져있으니 이것이 하나의 근본이 되며 진실로 마음에 있는 것과 사물에 있는 것의 구별이 없다. 그것(심)이 통하여 사물에 응하고 현상을 접함에 이르러서는 사사물물의 리는 바로 나의 마음이 본래 구비하고 있는 리(성)이다.”(『퇴계집』 권24, 「서-답정자중」)라고 한 것은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런즉 인간의 의식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의 본성 속에 이미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리를 사물현상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들어간 리가 자기를 확인해보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관념론적 리해는 리황이 직접 지적한바와 같이 “인의의 근원을 헤아리며 레악의 단서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격물하는 일”(『퇴계집』 권14, 「서-답남시포」)이라 하여 인식의 본질적 한계를 인성에 갖추어져있는 봉건적 도덕규범 즉 인의례지의 파악에 극한시키려는 지배계급의 리해 관계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리황은 더 나아가서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과정이 리 스스로의 자기 발현에 의한 자기 인식과정임을 명시하였는바 이것이 그의 유명한 ‘리자도’설이다.

리황은 주희의 이원론적인 리무위설을 리일원론적으로 개악하여 리를 조작성능력을 가진 능발능생의 자률적 존재로 확정한 리체용설과의 한 선상에서 말년인 1570년에 사물의 극치가 스스로 이룬다는 ‘리자도’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격물’이라 함은 내가 사물리치의 극치에 이룬다는 것이다. ‘물격’이라 하면 사물리치의 극치가 나의 궁구에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알았다. 의식작용이 없고

조작이 없는 것은 리의 본체요, 경우에 따라 발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리의 극히 신묘한 작용이다. 전날에는 내가 단지 본체가 무위한 것만 보고 묘한 작용이 드러나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리를 거의 죽은 물건으로 인정하다시피 하였으니 도에 어긋남이 심하지 않겠는가.”(『퇴계집』 권18, 「서-답기명언서」)라고 썼다.

리황은 이처럼 사물의 리치가 인식주체와 무관계하게 스스로 움직여 인식의 종착점에 이른다는 리자도설을 제기함으로써 인간의 인식과정이 인식주체와 대상의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제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리의 자기 운동에 의하여 제약되는 신비적인 과정임을 정면에서 주장해 나섰으며 그리하여 그의 인식론은 객관관념론적 인식론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리황은 륫리설 역시 리일원론에 기초하여 전개하였다. 리황의 륫리설에서 대표적인 것은 ‘主敬’론이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수양의 궁극적 목적을 절대적본질이며 지상의 륫리준칙인 리를 체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를 위한 근본방도로 ‘주경’을 제기하였다. 역대적으로 정이와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이 ‘정’이나 ‘경’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경’을 수양의 독자적 방식으로 중시한 것은 리황이다. 리황은 ‘경’에 대하여 특별히 많이 말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식의 깊은 리해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심혈을 기울인 『성학십도』가 ‘모두 경을 위주로 하였다.’(『퇴계집』 권7, 「차-진성학십도차 대학경」)고 할 정도로 ‘경’을 중시하였다. 그에게서 ‘경’이란 한마디로 ‘전일’(고도의 정신집중)을 가리킨다. 그는 “학문하는 도는 반드시 전일을 오래한 후에야 이루어진다.”(『퇴계선생언행록』 권1, 「론지경」)라고 하였다. 그의 견지에서 보면 ‘경’ 즉 전일하는 데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개개의 사물을 각각 전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심이 만사만물에 응함에 있어서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

러짐으로써 물욕에 흐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한 그림에 나아가 사고하면 마땅히 그 그림에 전일하여 다른 그림이 없는 것처럼 되어야 하며 한 가지 일에 나아가 습득하면 그 일에 전일하여 다른 일이 있음을 모르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퇴계집』 권7, 「차·성학십도차」) 다음 단계는 하나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단계 즉 ‘경’의 최고리상의 경지이다.

여기서 이르러 ‘심’과 ‘리’, ‘습’과 ‘사’, ‘아’와 ‘물’ 즉 주체와 객관세계의 완결된 통일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여 고도의 정신적 전일성을 유지함으로써 한곳에 집착되거나 바깥에 흐려짐이 없이 점차 ‘심리상함’(심과 리를 다같이 배양함)을 이룩하게 되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심에 내외가 없고 리에 피차가 없으며 심과 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을 체인하는 참다운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리황은 이것을 ‘하나에 극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리황이 이처럼 ‘몰아통일’을 ‘경’의 최고 리상 경계로 확정한 것은 그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천인합일의 묘가 거기서 얻어진다.”(위와 같은 책)는 것을 론증하기 위해서였다. 즉 그 목적은 ‘천리’에 부합되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필연성을 확증하자는데 있었다. 그가 ‘전일’의 수양방도의 구체적으로 론한 「심학도설」에서 그 본질적 내용을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퇴계집』 권7, 「차·성학십도차」, 「심학도설」)로 본 것은 그 뚜렷한 표현이다.

이것은 그의 ‘전일’의 수양방법이 본질에 있어서 ‘천리’(봉건적 도덕규범)을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으로써 봉건적 재질서가 요구하는 ‘참된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방도로서 제기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설, ‘전일’에 관한 리론은 류리학적으로 볼 때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리황이 인간의 완성에서 도덕적 인격완성, 내면수양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데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며 더욱이 수양론에서 로자, 불교의 주관주의를 배척한 것은 류리사상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수양한다고 하여 심속공부에만 치중하는 것을 석씨의 견해로 낙인하였으며 공자로부터 전해오는 '주정'설이 선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자기의 '경'은 "지행을 겸하고 동정을 관통하는 것"(『퇴계집』 권32, 「서-답우경선문목」)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정한 속에 스스로 동의 단서가 있으니 진실로 사물을 절연하고 눈을 감은 채 오똑하게 앉아 정에 기울어짐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퇴계집』 권42, 「정재기」)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심적 수양이 외부세계를 단절한 '정좌'가 아니라 사물현상과의 부단한 접촉 속에서만 참다운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가 정신적 전일성에 관한 문제를 외부사물과 연결시키고 '물아통일'을 '경'의 최고단계로 본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리황이 이처럼 비록 륜리도덕적 실천의 한계에서나마 인간의 정신도덕적 수양에서 그것이 노는 역할을 인정한 것은 주관관념론에 비한 그의 수양론의 긍정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 속에서는 천도보다 인도를 더 중시하며 인간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과 자연의 통일적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심성문제탐구가 줄곧 철학적 논의의 주류로 되어왔다. 그러한 경향성은 리황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는데 리황은 리를 그 어떤 무위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경체로 보는 리일원론적 요소와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본성과 그로 인한 륜리도덕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려는 리배양론적 요소의 전제하에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최대로 강조하는 '주경'론의 주장자로 등장하였다. 이리하여 리황은 정신수양을 기본으로 한 조선 성리학의 도학적 성격을 특징지은 대표적 인물로 되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양철학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총체적으로 말하여 리황의 철학사상은 정신적실체인 리를 내세워 봉건적인 도덕규범과 원리들을 자연필연적인 것으로 절대화한 리일원론적 객관관념론철학으로서 당대의 봉건제도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데 철저히 복무하였다.

Abstract

## About Yi Hwang's Philosophy

Pyôn, Chông-Am

Yi Hwang in the pen name Toe'gye, is the representative philosopher of idealism in the 16th century. His philosophy mainly consists of ontology, study of consciousness, and ethics. Considering reason (li) and energy (ki) as a unified unit, Yi Hwang deni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of thinking and the object. According to his theory, a man cognizes phenomenon, availing his inborn ability to reason, which is called as the theory of Lijado.

### **Key Word**

Toegye, Yi Hwang, Philosopher of Idealism, Theory of Unified Reason and Energy, Theory of Lijado